

영국 런던의 힙스터 동네, 쇼디치에 위치한 스튜디오 마마Studio Mama 하우스는 기발한 창작 과정과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부 디자이너 니나 톨스트루프Nina Tolstrup와 잭 마마Jack Mama의 집이자 작업실. 작품이 생활과 일상이 되고, 일상 도구가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그들의 공간을 찾았다.

디자인 모험이 넘치는 달콤한 집



거실과 부엌을 나란히 배치한 2층.
각종 허브가 자라는 야외 테라스와 통창 아래 쏟아지는 별,
그들의 '리-이매진Re-Imagine'
프로젝트 가구가 느린 여유를 선사하는 곳이다.





스톡홀름에 살았을 당시 구입한 디자이너 포울 키에르홀름Poul Kjærholm의 가구.



좁은 계단에도 창을 내고 그들이 큐레이션한 그림을 걸어두었다.



최근 디자인한 프로토타입 옷장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중이다. 날개처럼 문을 펼치면 가림막이 되면서 완벽한 드레스 룸이 생긴다. 무엇보다 가벼워 이동이 편하다.

달콤했다는 표현이 어울리겠다. 런던 고유의 서늘하지만 차갑지 않은 공기가 가득하고, 캔디 같은 컬러를 입은 디자인 가구 아래 고양이가 하염없이 낮잠을 청하는 나른한 풍경.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품 디자이너 니나와 잭의 집을 찾았을 때 처음 마주한 장면이었다. 그들의 디자인 작품처럼 핫 핑크, 옐로, 블루 등 비비드한 컬러의 옷을 입고 나타난 부부의 모습에 더욱 미소가 번졌다.

감수성을 품은 집

스튜디오 마마(www.studiomama.com)는 스웨덴 출신 니나 톨스 트루프와 영국 출신 잭 마마 부부가 런던을 거점으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에 뿌리를 두고 200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디자인 그룹이다.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인 메시지, 지속 가능한 정직한 디자인. 그들은 제품뿐 아니라 인테리어, 건축 프로젝트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한다. 니나는 요즘 시대에는 삶에 균형을 찾아주는 의미 있는 물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착한 소비가 아닌 개념 있는 소비가 필요한 요즘. 최근 그들은 건축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マイクロ リビング プロジェクト'란 이름 아래 런던 곳곳의 작은 집을 효율적으로 가꾸고 있다. 그들이 작업한 집은 에어비엔비로 숙박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집과도 이어진다. 작은 골목길 틈 사이에 들어선 레고 블록 같은 건물. 그들은 버려진 공장 건물을 발견하고 그들 방식대로 재창조하기로 결심했다. 어둡고 습한 데다 좁은 공장 안에 어떻게 밝은 기운을 들이고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현답은 이랬다.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두운 공간은 개라지로 쓰고, 계단을 놓아 2층 높이의 공간을 1층으로, 옥상은 지붕을 덮어 2층으로 만든 것. 또 지하에도 공간을 하나 만들었다. 현관부터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갈수록 시야는 열리고, 분위기는 전환된다. 1층엔 작업실과 남매인 두 아이들의 방을 두었고, 2층엔 공용 공간인 부엌과 거실, 그리고 부부의 개인 공간을 배치했다. 시야가 탁 트인 2층 테라스에서는 매일 식탁 위에 오르는 각종 허브들이 자라난다. 특히 오픈형 주방은 가장 마음이 끌었던 곳. 가족뿐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들과 시원한 맥주를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다.

"각 공간을 구분하는 벽과 문을 최소한으로 설계했어요. 침대를 두면 침실,ダイニング テーブル을 두면ダイニング 공간. 즉 가구의 동선에 따라 공간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다리처럼 벽에 기댈 수 있는 옷걸이, 접으면 수납장이 되고, 펼치면 데스크가 되는 선반 등 아이디얼한 제품을 고민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스튜디오 마마의 디자인 제품이 되었어요." 집 안 곳곳에는 그들의 설명에 따라 그런 창작 과정을 짐작할 수 있는 의자, 테이블, 옷장 등의 프로토타입 모델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집이 곧 창작소이고 작업실이자 아이디어 구심점인 셈이다.

디자인 물건이 주는 긴장감

2013년 스튜디오 마마와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가 협업해 완성한 '라이프 애프터 캐워크Life after Catwalk' 소파를 포함해 버려진 가구를 재탄생시킨 '리-이매진Re-Imagine' 프로젝트 가구 사이로 부부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폴 키에르홀름 소파와 의자, 데스크, 지난 주에 구입했다는 신진 디자이너의 드로잉 작품과 소품이 옹기종기 모인 풍경. 거실에는 세계 곳곳의 현재진행형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물건이 즐비하다. "런던은 매일마다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다국적과 다인종 사람들이 충돌하고 섞이면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죠. 아티스트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컬래버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작업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여는데, 그때마다 만났던 주변의 모든 인연이 이렇게 물건으로 남아 있죠."

부부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갤러리를 찾는

데, 최근에는 레븐 로Raven Row, 바이너 스트리트 갤러리Vyner Street Gallery, 화이트 큐브White Cube 갤러리에 자주 간다. 1백 일간의 1백 개 체어에 관한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이탈리아 디자이너 마르티노 감퍼Martino Gamper와 재활용한 물건으로 샹들리에를 만드는 스튜어트 헤이가스Stuart Haygarth의 공방, 탐나는 디자인이 많은 SCP 속에서 물건을 채집한다.

아름다운 것은 물건 자체의 물리적 기능을 가치로 바꾼다. 니나와 잭은 백과사전식의 일괄된 컬렉션이 아니라 스튜디오 마마의 생각과 철학을 볼 수 있는 물건을 주변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 우리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동시대적인 사고를 하는 디자이너의 물건을 보면서 저희 스타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린 어떤 것을 시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죠. 하나의 아이디어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



두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 부부 아티스트의 작품.
시간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설치 작품이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작한 팔레트 시리즈의 책장.



피터 블레이크Peter Blake, 데이먼 히스트Damien Hirst 등 팝아트 작가의 작품을 좋아한다.



두 부부가 좋아하는 꼼데가르송 디자이너의 슈즈. 신발 사이즈가 같아 함께 신는다고.



100% 디자인 런던에서 선보인 아웃도어 키친과 장난감.



작품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일상 속 도구가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일상이 작업의 일부인 부분. 모양과 컬러, 이야기가 모두 다른 체어가 한데 모여 있는 것이 흥미롭다.

1층에 위치한 스튜디오 마마의 작업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물건과 책이 가득하다.



에디터 계안나 | 포토그래퍼 레이문